

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¹⁾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Level and Family Relationship on Elementary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Anxiety

조찬희 (Chanhi Cho) 한성대학교 대학원²⁾
김교헌 (Kyoheon Kim) 한성대학교 대학원³⁾
이형용 (Hyoung-Yong Lee) 한성대학교 경영학부⁴⁾

〈 국문초록 〉

대한민국 국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성장했다. 취업모의 자녀돌봄휴가나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산으로 맞벌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의 교육적 경제적 수준은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분담을 하는 가족지원과 자녀와의 대화 및 놀이 활성화의 가정건강성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지원과 가정건강성으로 이루어진 2차 요인인 가족관계와 부모교육수준과 부모경제수준으로 이루어진 2차 요인인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의 초등학교 1,075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PLS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제안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관계와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가족관계나 부모수준 그리고 부모효능감은 양육불안감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부모수준은 사교육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모효능감은 사교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나 양육불안감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경제적 교육적 수준 향상은 사교육을 증가시키지만, 좋은 가족관계에 의한 부모효능감 향상은 양육불안감과 사교육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식경영 관점에서 자녀교육과 가족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데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가족지원, 가족건강성, 가족관계, 부모교육수준, 부모경제수준, 부모수준, 부모효능감, 양육불안감, 사교육, 지식경영

1)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2) 제1저자, Joseph.ch.cho@gmail.com
3) 제2저자, kyoheon2006@naver.com
4) 교신저자, leemit@hansung.ac.kr

1. 서론

대한민국 국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성장했다(교육통계서비스, 202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2012년 44%(5,201/11,822가구)에서 2019년 46%(5,662/12,305가구)로 확대되었다(통계청, 2020년). 취업모의 자녀돌봄 휴가나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산으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었다. 2018년말 현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양부모 가정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4.6% 수준이다(류정희 외, 2019). 고등교육 이수자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의 교육적 경제적 수준은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다. 자녀교육을 직접 할 수 없는 취업모의 증가와 자녀교육에 뒤지면 안된다는 전업모의 불안에 의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수요의 증가로 사교육 비용은 2014년 월평균 24.2만원에서 2019년 월평균 32.1만원으로 증가하였다(유진성, 2021).

본 연구는 초등학교 양육에 있어 부모수준과 가족관계가 초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 양육에 있어 사교육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맞벌이 부부의 워라벨(Work-Life Balance)과 사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 적절한 연구라는 것이다. 둘째, 기존 선행 연구가 특정 지역의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전국의 보편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청의 2차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가 있다. 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 초등학생 1,07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사용하

였다. 셋째, 기존 선행 연구가 1세대 통계 방법인 회귀분석이나 2세대 통계 방법 중에서도 공분산구조방정식모형(Covariance-Based SEM : CB-SEM)인 LISREL이나 AMOS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2세대 통계기법 중에서도 비모수(Non-parameters) 자료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최소자승(Partial Least Squares :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방법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즉, SPSS 27을 통해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들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SmartPLS 3.0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계층적 구성요소 모형(Hierarchical Component Model)을 사용하여 많은 변수를 사용하면서도 모형의 단순화를 이루어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즉,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으로 이루어진 2차 요인인 가족관계와 부모교육 수준과 부모경제수준으로 이루어진 2차 요인인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초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관련 선행연구, 연구모형 및 가설수립, 통계분석과 가설 검증의 연구방법, 결론 순이다.

2. 선행연구

2.1. 사교육

통계청은 사교육을 방과 후 활동, EBS 강의, 학교 이외의 보충교육이라 말하였다(통계청, 2020). 사교육은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학교밖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요하는 것이다(백일우, 김민선, 2014).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과 적성을 키우기 보다는 학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김미경, 2002). 통계청이 조사를 주관한 초·중·고 사교육

비조사(2020)에서는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통신강좌 및 인터넷 등과 같은 학교 외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EBS 교재비, 방과 후 학교 비용, 어학연수비 등을 사교육비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2.1.1. 초등 사교육의 배경과 인식

대한민국은 학원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원이 발달되어 있다. 박소진 외(2003)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 사교육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 같은 조기교육이 발전하는 이유는 사교육이 내용, 형태, 가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경제자본과 어머니의 관여로 사교육의 문화자본을 가진 아이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이부미와 이수정(2010)은 고용불안과 저성장으로 대한민국에는 경쟁이 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부모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 부모는 양육 지식을 가정내에서 얻는 것이 어려워지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젊은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었다. 우남희 외(2009)는 학원은 고급화되었고 확실한 결과를 위해 뽀뽀한 학습계획을 내걸며 대형화되었는데, 부모들은 그와 같은 학원의 특별 교육을 원했다. 부모들은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예체능과 인성 교육을 지양하고 학업 성과 증진 중심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현주(2003) 및 오지수(2007)는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열기는 ‘심리적 중독 현상’이라고 하면서 ‘자녀가 학원에 있거나 과외를 하는 동안 마음이 편하다’ 또는 ‘사교육을 중단하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부모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은영 외(2006)는 사교육 이용 비율은 84%이며 예체능 사교육을 추가로 하는 비율은 과반수 이상이지만 현재 사교육이 부

족하다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말했다. 사교육은 중산층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상승하고 싶은 마음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내면화된 현상이다(김신주, 1995; 오지수, 2007).

2.1.2. 초등 사교육의 영향 요인

초등 사교육에 있어 영향 요인은 다양하다. 서문희 외(2013)는 가구소득이 높으면 사교육비용도 비례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했다. 김지경(2004)은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보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교육 이용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반면, 서문희 외(2013)는 취업하지 않은 전업모의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사교육을 시킨다고 했다. 한유미(2010)는 사회적 자본투자가 높은 가정일 경우 조기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학업성취는 자녀의 능력에 따른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들일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말했다.

2.2. 가족관계

가족관계 관련 김혜연 외(2009)는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로 정의하였고, 이런 인간관계가 가족구성원 간의 의무와 권리 관계라고 하였다. 구자경(2014) 및 이하영(2017)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관계가 아동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 영향을 끼치는 일차환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친밀감, 유대감, 의사소통, 권력 및 역할 관계, 존중과 상호수용 등이 가족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이현정(2011)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대인관계를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하위 그룹으로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을 구성하였다.

2.2.1. 가족지원

먼저 가족지원은 양육에 대한 남편의 외조를 말한다. 문혁준(2004)은 남편의 지원은 취업모와 전업모 양쪽에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부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남효정 외(2011)는 현대사회에서 자녀양육에 있어 남편의 역할분담과 공동참여에 대한 아내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2010) 및 신희숙(2014)은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 갈등을 낮춘다고 했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진다고 말했다. 허수연(2008)은 가사노동이 아내의 고유영역이라는 생각이 바뀌었고, 가사노동에 있어 남편이나 가족이 분담하는 모습이 일상생활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 노동을 하는 취업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남편의 가사분담을 요구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2.2.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에 대해 유영주(2002) 및 양수민(2013)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발달을 꾀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인 의사결정과정,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를 원만하게 하여 가정 내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체계 및 친족과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Beavers & Hampson(2003)은 타인의 말에 개방성이 있고 감정이입이나 이해도가 높은 가족, 부모가 연합하여 개인행동에 책임을 지고 친밀감을 드러내는 가족, 갈등해결 능력에 있어 평등적 권력이나 명확한 표현과 목표 지향적인 협상력을 가진 가족은 가족건강성이 있는 가족이라고 했다. Lewis(1989)는 친밀하거나 긍정적 가치와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가진 건강한 결혼을 하는 가족,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권력이 분배되고 감정의 표현이 바람직한 문제해

결 방향으로 펼쳐지는 가족, 자율성이 촉진되는 가족에게서 가족건강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3. 부모수준

부모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부모수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Flanagan(1993)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위를 가진 부모는 교육과 직업에 있어 뚜렷한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의 자기지향성과 같은 독립적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부모는 자녀의 사고 독립성 보다는 직업에 적합한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Hsieh et al.(2014)는 자녀의 개인적 사고 차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가치차이가 동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말하였다. Coleman(1988)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에게 전이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은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2020)은 부모의 주관적 성공이 부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3.1. 부모경제수준

노혁(2006)은 부모의 경제수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은 아버지의 학력이 중요하고, 중학교 3학년은 가구 소득이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uryan et al.(2008)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에 전이되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로서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 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진 외(2010)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하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비해 진로 포부에 있어 잘 예언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3.2. 부모교육수준

O. Sullivan et al(2014)은 고학력의 여성들은 자녀 돌봄에 있어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자녀 돌봄시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Bonke & Esping-Andersen(2011)은 고학력 부모일수록 자녀양육시간이 늘어난다고 했다. 즉, 자녀에게 제공되는 부모의 시간과 노력은 고학력 부모 집단에 집중되는데, 특정집단에 한정된 자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의 투자 양극화가 계층 대물림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림(2018)은 부모 교육수준을 범주형으로 구성하여 교육수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를 1,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을 2, 4년제 졸업 이상과 석사 미만을 3, 석사 졸업 이상을 4의 범주로 구성하기도 했다.

2.4. 부모효능감

Scheel & Rieckman(1998)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지각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Doresey et al. (1999)은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양육행동 수행 능력에 대한 부모 스스로의 믿음이라고 했다. 안지영(2000)은 부모효능감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라 하여 양육효능감이라고 말했다. 부모 역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녀양육 관련 문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지각으로 보았다. 김효진(2020)은 부모효능감이 양육불안감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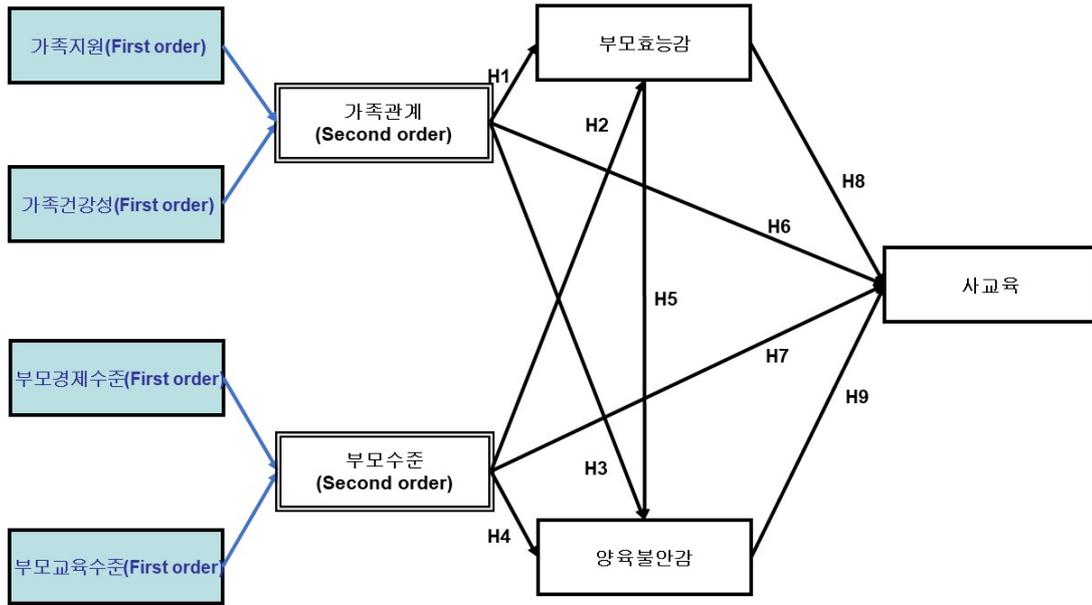
2.5. 양육불안감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더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정수천(1995)은 젊은 연령의 어머니는 능력개발을 위한 사교육을 많이 하고 사교육 만족도도 높았다. 김시월 외(1999)는 사교육 지원의 핵심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이 사교육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고 믿는다는 연구를 하였다. 김희복(1992)은 공교육 불신과 다른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을 때 사교육을 받지 않는 자신의 자녀가 경쟁에서 도태되리라는 인식이 어머니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고 했다. 김효진(2020)은 양육불안감이 사교육 정도를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즉, 자녀의 양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너무나 다양한 육아정보로 인해 생긴 양육불안감이 유아 사교육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기저라고 하였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수립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를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으로 구성된 2차요인으로, 부모수준을 부모경제수준과 부모교육수준으로 구성된 2차요인으로 만들어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가족관계의 1차요인으로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을 설정하였다. 이순웅(2010)은 가족관계의 1차 요인인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남편의 양육참여는 심리적 안녕감, 부부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가족지원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부모수준의 1차요인으로 부모경제수준과 부모교육수준을 설정하였는데 김효진(2020)



〈그림 1〉 연구모형

은 부모경제수준 및 부모교육수준과 유사한 개념인 부모의 주관적 성공이 부모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와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 가족관계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관계의 1차요인인 가족지원, 부모수준의 1차요인인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관련하여 이순웅(2010)은 취업모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 직업, 총소득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와 부모수준이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된다. 또한 이재희 외(2020)는 취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 ‘학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하였고 전업모가 느끼는 양육불안은 ‘독박육아

의 어려움’, ‘남편과의 역할 분담 필요’, ‘재취업과 경력단절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부모효능감이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불안감은 가족관계, 부모수준, 부모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H3 : 가족관계는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 부모수준은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 부모효능감은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수민(2013)은 가족이 여가를 함께 하거나 가족자원봉사활동은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는 가족건강성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된다. 이에 림(2018)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자녀 돌봄시간을 가진다고 하였고, 최덕희(2020)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태도 성숙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고, 오지수(2007)는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수준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된다. 박세정(2009)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여부에 있어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생 본인의 결정권이 높아진다고 연구를 하였는데 이는 부모효능감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된다. 김효진(2020)은 양육불안감이 높으면 사교육 정도가 심해진다고 하였고, 부모효능감은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양육불안감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의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부모수준, 부모효능감, 양육불안감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H6 : 가족관계는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 부모수준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 부모효능감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 양육불안감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조사다. 동 조사는 대한민국 아동의 성장환경 및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환경, 아동의 양육,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을 비롯한 아동의 성장환경 및 삶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동 자료에는 만 0세 영아부터 만 17세까지의 청소년을 가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방대한 조사 결과가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가족지원, 가족건강성,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 사교육 현황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였다. 데이터는 통계청 사이트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제공받았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19년에 2018년말을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문헌

연구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문헌
사교육	자녀를 교육시킴으로써 공교육비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경비를 말함	윤정일(1997)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 정도	이하영(2017)
가족지원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는 남편이 물리적, 신체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행동의 양적 정도	최경순(1993), 이순웅(2010)
가족건강성	가족 구성원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한 정도	유영주(2002), 양수민(2013)
부모수준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의 원천, 직업의 종류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의 정도	기모란 외(1999)
부모경제수준	부모의 자녀돌봄 현상과 관련된 부모의 경제수준의 정도	고은주 · 김진욱(2016)
부모교육수준	부모의 자녀돌봄 현상과 관련된 부모의 교육수준의 정도	고은주 · 김진욱(2016)
부모효능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자녀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할 수 있다는 부모역할수행능력 관련 부모 자신의 믿음의 정도	Johnston & Mash(1989), 하미정(2008)
양육불안감	어떤 특정한 양육의 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	이재희 외(2020)

기준으로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4,039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그 중 초등학교 기간인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 아동 1,07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가정의 사교육 현황을 연구하기 위해 수급가정과 한부모/조손 가족을 제외한 일반가정

과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요약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은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51.8%)와 여자(48.2%)의 구성비율이 비슷하였고, 취업모와 전업모의 구성을 보면 맞벌이 가정이 54.6%로 전업모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아동 연령		전체
		만 6세~만 8세	만 9세~만 11세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	80 (16.6%)	86 (14.5%)	166 (15.4%)
	50% 이상 100% 미만	203 (42.2%)	246 (41.4%)	449 (41.8%)
	100% 이상 150% 미만	160 (33.3%)	207 (34.8%)	367 (34.1%)
	150% 이상	38 (7.9%)	55 (9.3%)	93 (8.7%)
성별	남	236 (49.1%)	321 (54.0%)	557 (51.8%)
	여	245 (50.9%)	273 (46.0%)	518 (48.2%)
맞벌이부모 여부	맞벌이	282 (58.6%)	305 (51.3%)	587 (54.6%)
	외벌이	199 (41.4%)	289 (48.7%)	488 (45.4%)
계		481 (100.0%)	594 (100.0%)	1,075 (100.0%)

<표 3> 측정도구 기준

구성개념	연구자	내용	비고
가족 지원	Abidin(1988) 개발, 신숙재(1997)이 번안(*)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Teamwork을 가족지원 영역인 11개의 문항을 사용	리커트 5점 척도
가족 건강성	양옥경, 김연수(2007)	가족원들 간의 수용 및 존중성과 정서적 친밀성을 측정하는 총 15문항 사용(가족친밀영역 10문항, 수용존중영역 5문항)	리커트 5점 척도
부모 경제수준	김효진(2020)	이론적 배경에서 내린 정의에 기반을 두어 식품구매능력, 여가활동능력, 주거환경조절능력, 질병 및 노후대비능력, 자녀교육 양육능력의 설문 답변 여부의 숫자 합을 범주형으로 구성 (1=숫자 합이 0, 2=숫자 합이 1, 3=숫자 합이 2, 4=숫자 합이 3, 5=숫자 합이 4), 집 점유형태와 소속 계층에 대한 범주형 5가지 답변	리커트 5점 척도
부모 교육수준	이예림(2018)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학력 중 높은 학력을 순서대로 교육 수준에 따라 범주형으로 구성(초등=1, 중학=2, 고등=3, 전문대=4, 대학=5)	리커트 5점 척도
부모 효능감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 신숙재(1997)가 번안(*)	한국판 PSOC 척도를 사용(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3문항, 불안감 및 좌절감 4문항, 효능감 9문항, 등 총 16개 문항 중 9개 효능감 문항 활용)	리커트 5점 척도
양육 불안감	Abidin(1992) 개발, 김기현 강희경(1997) 번안(*)	Parental Stress Index Short Form 중 Parental Distress 영역인 11개의 문항을 사용	리커트 5점 척도
사교육	김효진(2020)	이론적 배경에서 내린 정의에 기반을 두어 학원 이용 여부, 예체능학원 이용 여부, 학습지 이용 여부, 비용 지불식 학교내 방과 후 교실 이용 여부의 숫자 합을 범주형으로 구성 (1=숫자 합이 0, 2=숫자 합이 1, 3=숫자 합이 2, 4=숫자 합이 3, 5=숫자 합이 4)	리커트 5점 척도

*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설문 인용’에 언급된 연구자를 기재함

가정에 비해 더 많았다. 또한 가구균등화 중위소득 100% 미만이 57.2%로 100%이상보다 더 많았다. 참고로 지역 분포는 광역시 이상 8개, 9개의 도 등 전국 17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었다.

4.2. 측정도구

가족관계, 부모수준, 부모효능감, 양육불안감, 초등사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 3> 측정도구 기준을 통해 연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측정도구 기준에 따라 측정도구를 좀더 자세히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본 연구의 측정도구 세부내용

구성개념	측정문항	문항	척도
가족 지원	가족지원1	귀하의 배우자는 식사준비나 설거지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리커트 5점척도
	가족지원2	귀하의 배우자는 집안청소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3	귀하의 배우자는 장보기나 쇼핑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4	귀하의 배우자는 장난감놀이이나 신체놀이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5	귀하의 배우자는 아이에게 책 읽어 주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6	귀하의 배우자는 아이와 운동, 스포츠, 바깥놀이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7	귀하의 배우자는 아이와 TV나 비디오 시청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8	귀하의 배우자는 아이와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9	귀하의 배우자는 숙제 및 학업지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가족지원10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 및 학원 등하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1='한적 없음/해당없음', 2='1~2회', 3='한 달에 1~2회', 4='일주일에 1~2회', 5='거의 매일'			
가족 건강성	가족건강성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리커트 5점척도
	가족건강성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가족건강성3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가족건강성4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가족건강성5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가족건강성7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가족건강성8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가족건강성9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가족건강성10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가족건강성11	우리 가족은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가족건강성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가족건강성13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가족건강성14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가족건강성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구성개념	측정문항	문항	척도
부모 경제 수준	부모경제수준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여=1, 부=0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여=1, 부=0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여=1, 부=0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없다. 여=1, 부=0	리커트 5점척도
	부모경제수준2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여=1, 부=0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여=1, 부=0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여=1, 부=0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여=1, 부=0	
	부모경제수준3	출치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1, 부=0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여=1, 부=0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여=1, 부=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1, 부=0	
	부모경제수준4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있다. 여=1, 부=0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여=1, 부=0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여=1, 부=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여=1, 부=0	
	부모경제수준5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여=1, 부=0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여=1, 부=0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여=1, 부=0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여=1, 부=0	
	1='숫자 합이 0', 2='숫자 합이 1', 3='숫자 합이 2', 4='숫자 합이 3', 5='숫자 합이 4'		
	부모경제수준6	귀하의 집 점유형태는? 기타(1), 월세(2), 보증부 월세(3), 전세(4), 자가(5)	
부모경제수준7	상층(5), 중상층(4), 중간층(3), 중하층(2), 하층(1)의 5단계 중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십니까?		
부모 교육 수준	부모교육수준1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학력 중 높은 학력이 초등학교 재학/졸업인 경우 = 1	리커트 5점척도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학력 중 높은 학력이 중학교 재학/졸업인 경우 = 2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학력 중 높은 학력이 고등학교 재학/졸업인 경우 = 3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학력 중 높은 학력이 전문대학 재학/졸업인 경우 = 4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학력 중 높은 학력이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인 경우 = 5	
부모 효능감	부모효능감1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리커트 5점척도 (* 역코딩 문항)
	부모효능감2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모효능감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부모효능감4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부모효능감5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데 대해 자신이 없다	
	*부모효능감6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부모효능감7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부모효능감8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부모효능감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구성개념	측정문항	문항	척도
양육 불안감	양육불안감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리커트 5점척도
	양육불안감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양육불안감3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양육불안감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양육불안감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양육불안감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양육불안감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양육불안감8	양육 비용이 부담스럽다	
	양육불안감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양육불안감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 달라고 보이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양육불안감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사교육	사교육	학원(예체능 제외) 이용 여부 (예=1, 아니오=0), 예체능 학원 이용 여부 (예=1, 아니오=0), 학습지 이용 여부 (예=1, 아니오=0), 학교내 방과 후 교실(자발적 별도 비용 지불 보충 학습) 이용여부 (예=1, 아니오=0)	리커트 5점척도
		1='숫자 합이 0', 2='숫자 합이 1', 3='숫자 합이 2', 4='숫자 합이 3', 5='숫자 합이 4'	

5. 분석 및 결과

5.1. 측정모형

본 연구는 공분산기반인 AMOS나 LISREL이 아닌 PLS(Partial Least Square) 기반의 SmartPLS Ver. 3을 사용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Reliability)를 분석했다. 또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Analysis) 분석을 하였다. Hair Jr et al.(2014)과 광기영(2019)은 신뢰도 분석을 위해 0.7 이상의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또한 Anderson & Gerbing(1988)과 이승호, 광기영(2018)은 선행연구에서 집중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적재값(Outer Loading)이 0.7이상의 측정변수를 사용하기 위해 그보다 작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은 <표 5>와 같이 Cronbach's Alpha 가 0.7이상이며,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가 0.8로서 바람직한 신뢰도를 보였다.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0.5이상으로서 유의하다. 판별타당성 분석을 위해 <표 6>의 대각으로 이루어진 칸에 표시된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과 그 변수의 좌방이나 하방에 위치한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함을 확인하여 유의성을 평가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허병준, 2020).

5.2. 구조모델 및 가설검정

구조모형이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S-SEM의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결정계수 R^2 , R^2 의 효과 크기값 f^2 , 예측적 적합성 값 Q^2 ,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표 7>의 잠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평가결과는 내부 VIF값을 이용한다(Hair et al., 2017). 내부 VIF는 모두 5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외생변수의 설명력은 <표 8>의 수정된 R^2 로 판단할 수 있

〈표 5〉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 분석결과(2차)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Cronbach's α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가족관계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1	0.724	0.877	0.903	0.537
		가족건강성12	0.714			
		가족건강성13	0.731			
		가족건강성14	0.741			
		가족건강성15	0.791			
		가족건강성2	0.722			
		가족건강성8	0.711			
	가족건강성9	0.724				
	가족지원	가족지원10	0.771	0.814	0.867	0.621
		가족지원4	0.736			
가족지원5		0.767				
가족지원8		0.870				
부모수준	부모경제수준	부모경제수준2	0.893	0.781	0.901	0.820
		부모경제수준4	0.918			
	부모교육수준	부모교육수준	1.000	1.000	1.000	1.000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1	0.732	0.802	0.863	0.558
		부모효능감2	0.713			
		부모효능감3	0.724			
		부모효능감8	0.778			
		부모효능감9	0.786			
양육불안감		양육불안감1	0.766	0.922	0.934	0.588
		양육불안감10	0.773			
		양육불안감11	0.792			
		양육불안감2	0.784			
		양육불안감3	0.730			
		양육불안감4	0.773			
		양육불안감5	0.771			
		양육불안감6	0.736			
		양육불안감7	0.779			
		양육불안감9	0.761			
사교육		사교육	1.000	1.000	1.000	1.000

〈표 6〉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Fornell & Lacker Criterion)

	가족건강성	가족지원	부모경제수준	부모교육수준	부모효능감	사교육	양육불안감
가족건강성	0.733						
가족지원	0.075	0.788					
부모경제수준	0.273	0.037	0.906				
부모교육수준	0.260	0.062	0.374	1.000			
부모효능감	0.524	0.017	0.246	0.283	0.747		
사교육	0.078	0.013	0.229	0.219	-0.061	1.000	
양육불안감	-0.340	0.131	-0.205	-0.117	-0.303	0.036	0.767

※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곱근 값이며, 대각선 외 값은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표 7> 잠재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평가결과(VIF)과 효과크기 평가결과 요약

	내부 VIF(5)			효과크기(f^2)		
	부모효능감	사교육	양육불안감	부모효능감	사교육	양육불안감
가족건강성	1.119		1.439	0.287		0.050
가족지원	1.008		1.009	0.001		0.029
부모경제수준	1.209		1.216	0.005		0.013
부모교육수준	1.202		1.229	0.022		0.001
부모효능감		1.101	1.434		0.015	0.021
사교육						
양육불안감		1.101			0.000	

<표 8> 결정계수(R^2)와 예측적 적합성(Q^2)의 평가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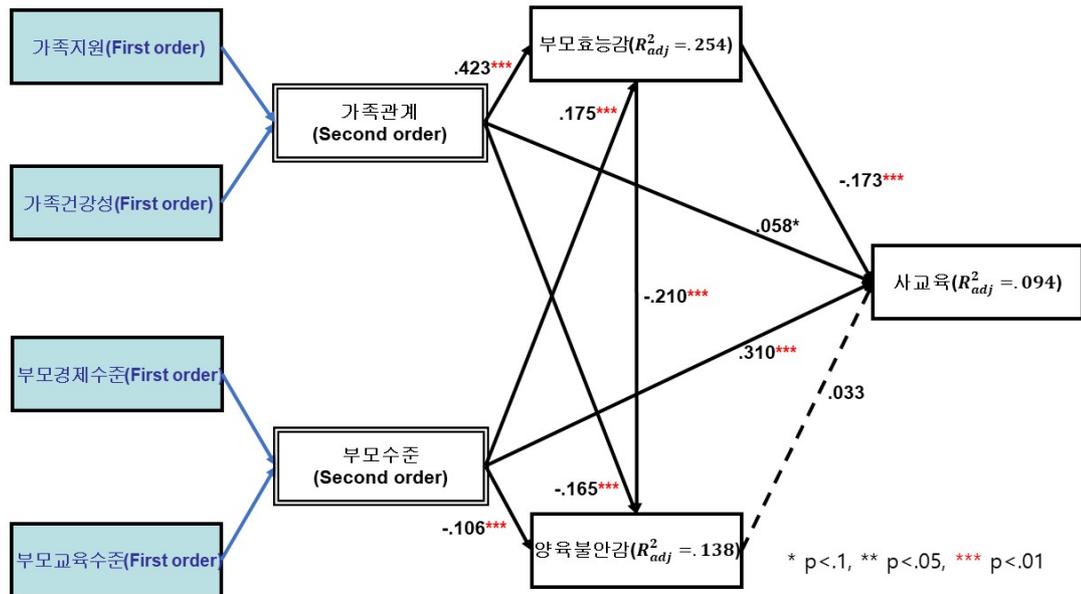
내생잠재변수	R^2	수정된 R^2	예측적 적합성(Q^2)
부모효능감	0.302	0.300	0.166
사교육	0.004	0.002	0.014
양육불안감	0.172	0.168	0.097

다(Hair et al., 2011; 신건권, 2018). 또한 내생변수에 대한 외생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f^2 를 통해 알 수 있다(Chin, 1998; 신건권, 2018). <표 7>에 R^2 와 f^2 값이 산출되었는데, 외생변수의 설명력과 외생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의 예측적합성은 내생변수의 Q^2 값이 0보다 크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Fornell & Cha, 1994; 신건권, 2018). Q^2 은 모두 0 보다 커서 예측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계층적 구성요소 모형(Hierarchical Component Model) - 2차 요인 모형(Second order factor model)을 이용하였다.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의 반영적(Reflective) 1차 요인(First order factor)을 가족관계라는 형성적(Formative) 2차 요인(Second order factor)으로 구성하여서 PLS 구조 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경제수준과 부모교육수준의 반영적 1차 요인을 부모수준이라는 형성적 2차 요인으로 구성하여서 PLS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 요인의 잠재변수 점수(Latent

variable score)를 이용하여 2단계(Two-Stage)모형으로 분석하였다(Hair Jr et al., 2014; 허병준, 2021). LISREL, AMOS같은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의 분석 도구와 달리 PLS구조방정식은 모형적합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소규모 표본인 경우,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비모수 자료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한 우수성을 갖고 있다(허병준, 2021). 수행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신뢰수준 99%와 95%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PLS 구조방정식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표 9>와 <그림 2>를 통해 가족관계와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에, 가족관계와 부모수준 그리고 부모효능감은 양육불안감에 99%의 신뢰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이 좋으면 부모효능감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수준과 부모효능감은 사교육에 99.9%의 신뢰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교육적 수준이 높거나 부모효능감이 높으면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족관계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표 9〉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평가 결과 요약 : 가설검정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 Values	95% 신뢰구간	결과
H1	가족관계 → 부모효능감	0.423	15.769	0.000 ***	[0.379, 0.47]	채택
H2	부모수준 → 부모효능감	0.175	6.114	0.000 ***	[0.128, 0.223]	채택
H3	가족관계 → 양육불안감	-0.165	5.267	0.000 ***	[-0.216, -0.113]	채택
H4	부모수준 → 양육불안감	-0.106	3.471	0.001 **	[-0.158, -0.055]	채택
H5	부모효능감 → 양육불안감	-0.21	6.226	0.000 ***	[-0.269, -0.157]	채택
H6	가족관계 → 사교육	0.058	1.646	0.100 *	[-0.003, 0.111]	기각
H7	부모수준 → 사교육	0.31	10.812	0.000 ***	[0.263, 0.355]	채택
H8	부모효능감 → 사교육	-0.173	4.764	0.000 ***	[-0.232, -0.111]	채택
H9	양육불안감 → 사교육	0.033	1.091	0.275	[-0.016, 0.085]	기각

* $p < .1$, ** $p < .05$, *** $p < .01$

와 양육불안감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은 초등 사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양육불안감이 커지면 만 3세에서 만 8세까지의 아동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효진, 2020)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양육불안감이 초등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초등사교육에 있어 양

육불안감과 무관하게 초등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효능감과 가족관계 그리고 부모수준이 양육불안감을 매개

<표 10> 특정간접효과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정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 Values	95% 신뢰구간	결과
H10-1	가족관계 → 부모효능감 → 양육불안감	-0.089	5.972	0.000***	[-0.115, -0.065]	채택
H10-2	부모수준 → 부모효능감 → 양육불안감	-0.037	4.438	0.000***	[-0.051, -0.024]	채택
H11-1	가족관계 → 부모효능감 → 사교육	-0.073	4.457	0.000***	[-0.1, -0.047]	채택
H11-2	부모수준 → 부모효능감 → 사교육	-0.03	3.678	0.000***	[-0.044, -0.018]	채택
H11-3	부모효능감 → 양육불안감 → 사교육	-0.007	1.036	0.301	[-0.019, 0.004]	기각
H12-1	가족관계 → 양육불안감 → 사교육	-0.005	1.022	0.307	[-0.015, 0.002]	기각
H12-2	부모수준 → 양육불안감 → 사교육	-0.003	1.02	0.308	[-0.009, 0.002]	기각
H13-1	가족관계→부모효능감→양육불안감→사교육	-0.003	1.04	0.299	[-0.008, 0.001]	기각
H13-2	부모수준→부모효능감→양육불안감→사교육	-0.001	1.005	0.315	[-0.003, 0.001]	기각

* $p < .1$, ** $p < .05$, *** $p < .01$

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이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이중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한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이 양육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9%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99%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양육불안감을 매개로 부모효능감,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이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나 부모수준은 부모효능감과 양육불안감을 이중매개로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특정지역의 일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 선택의 한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정교하게 표본 설계된 전국 학부모들을 방문 면접한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등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학부모들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얻은 2차 데이터를 가지고 1세대 통계기법인 회귀분석이나 2세대 통계기법 중에서도 엄격한 분포를 가정한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 모델링분석(Covariance-Based SEM : CB-SEM)의 LISREL이나 AMOS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2세대 통계기법 중에서도 비모수(Non-parameters) 자료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최소자승(Partial Least Squares : PLS)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방법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셋째, 계층적 구성요소 모형(Hierarchical Component Model)을 이용하여 많은 독립변수로 인한 모형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였다. 즉,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을 가족관계의 2차 요인으로, 부모경제수준과 부모교육수준을 부모수준의 2차 요인으로 축약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가정들이 초등 사교육 열풍 가운데서도 가족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자녀교육의 효과를 발휘하여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지식경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같이 부모의 경제 및 교

육 수준이 높으면 사교육이 증가되는 것을 검증하였고,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 확대를 통해 높아진 부모 효능감이 사교육 제어 요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부모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효능감에 도움을 주는 배우자 도와주기나 자녀와의 놀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양육불안감을 낮추는 요인으로서 가족관계, 부모수준, 부모효능감을 찾아냈다. 이는 쉽게 개선 시킬 수 없는 부모수준을 제외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는 가족관계와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해 부부가 노력하면 양육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에 있어 부모효능감을 높이고 적절한 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연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차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사교육열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교육열이 높은 대도시 지역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소득 계층별, 취업모와 전업모 그룹 간,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그룹 등의 차이를 비교하는 다중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추가 연구하면 초등 학부모들을 위한 가정내 지식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본 연구는 사교육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인 만 6세에서 만 11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관계, 부모수준 같은 부모 요인이 부모효능감, 양육불안감의 매개변수를 통해 초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이 양호하면 부모효능감이 상승하고,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으면 부모효능감이 높아졌다. 또한 가족관계, 부모수준, 부모효능감은 양육불안감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높아진 부모수준은 사교육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부모효능감은 사교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에서 지식경영 관점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효율적 경영을 하듯이 가정 안에서 지식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공부하고 가족끼리 공유해야 한다. 증가되는 맞벌이 가정들이 자녀 사교육 때문에 양육불안감이 증가될 수 있지만, 가정내에서 가족지원과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지식경영을 통해 높은 부모효능감과 적절한 자녀 사교육을 시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고은주, 김진옥 (2016). 자녀연령과 계층적 요인이 영유아 자녀 직접돌봄시간 유형에 미치는 영향: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6(4), 35-62.
2. 광기영 (2019).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 및 다중집단분석. **지식경영연구**, 20(2), 1-24.
3. 교육통계서비스 (2020). [2020년 12월] OECD 교육지표로 보는 고등교육 통계.
4. 기모란, 김미경, 방금녀, 허춘영, 안동현, 강운주, 최보울 (1999). 청소년 비만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연관성-서울, 양평, 중국 연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예방의학회지**, 32(1), 9-16.
5. 김미경 (2002). 마인드 맵(MIND-MAP) 방법을 이용한 중학교 도덕과 교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지**, 2, 155-180.
6. 김시월, 박배진 (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67-80.
7.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II_2세와 5세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399.
8. 김지경 (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 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91-104.
9. 김혜연, 광인숙, 홍성희, 김성희 (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코칭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7(4), 19-30.
10. 김효진 (2020). 부모의 주관적 성공, 부모 효능감, 양육 불안이 유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계개발원.
11. 김희복 (1992). **학부모 문화 연구: 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2. 남효정, 이숙현 (2011).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07-121.
13. 노혁 (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6-328.
14.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외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9-17.
15.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16. 박세정 (2009). **사교육 실태 및 의식 조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춘천.
17. 박소진, 박병영 (2004). 학벌경쟁 사회의 사교육 소비-서울 지역 초등학생의 사례. **사회발전연구**, 9, 49-84.
18. 백일우, 김민선 (2014). 사교육에 대한 가계와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 고찰. **미래교육학연구**, 27(2), 423-97.
19. 서문희, 양미선 (2013).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59-276.
20. 신건권 (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청람.
21.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19(1), 27-42.
22. 신희숙 (2014).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23. 안지영, 박성연 (2002). 2-3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24. 양수민 (2013). **가족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25.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6, 79-110.
26. 오지수 (2007).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7.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 (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28. 유진성 (2021).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9. 윤정일 (1997). 私教育費의 概念, 增加原因 및 對策. **消費者問題研究**, (19), 1-28.
30. 이명진, 봉미미, 권순구 (2010). 저소득층과 중산층 청소년의 진로포부 예측변인 비교. **교육심리연구**, 24(2), 423-447.
31. 이부미, 이수정 (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18, 85-107.
32. 이순웅 (2010). **취업모의 취업관련 특성, 남편의 양육참여, 부모-교사 협력행동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33. 이에림 (2018).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돌봄시간에 미치는**

- 영향-발달적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34. 이재희, 박지희 (2020). 초등학교 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불안.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3), 211-216.
 35. 이하영 (2017).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에 나타난 가족관계 및 갈등의 구조분석.**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경주.
 36. 이현정 (2011). **이동이 지대한 분노정서와 가족관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37. 정수천 (1995). **초등학교 아동의 사교육비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38. 최덕희 (202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 태도성숙에 미치는 경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39. 통계청 (2020a). **지역별고용조사.**
 40. 통계청 (2020b). **초중고사교육비조사.**
 41. 하미정 (2008).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대학원, 인천.
 42. 한유미 (2010). 가정환경 변인과 학업성취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신념이 유아의 사교육 실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81-90.
 43. 허병준, 이형용 (2021).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 기업가정신과 업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2(1), 121-138.
 44.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국외 문헌]**
45.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46. Beavers, W. R., & Hampson, R. B. (200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pp. 549-580). The Guilford Press.
 47. Bonke, J., & Esping-Andersen, G. (2011). Family investments in children-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 car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1), 43-55.
 48. Chin, W. W. (1998). Commentary: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22(1), 7-16.
 49. Coleman, S. M. (1988).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to the severity of the incestuous offense in father-daughter inces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50.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Group, F. H. P. R.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295-305.
 51. Flanagan, C. A., & Eccles, J. S. (1993). Changes in parents' work status and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4(1), 246-257.
 52.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382-388.
 53. Guryan, J., Hurst, E., & Kearney, M. (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54. Hair Jr, J. F., Sarstedt, M., Hopkins, L., & Kuppelwieser, V. G. (2014).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An emerging tool in business research. *European Business Review*, 26(2), 106-121. doi:10.1108/EBR-10-2013-0128
 55. Hair Jr, J. F., Sarstedt, M., Ringle, C. M., & Gudergan, S. P. (2017). *Advanced issues i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ge Publications.
 56. Hsieh, H. H., & Huang, J. T. (2014).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roactive personality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29-43.
 57. Lewis, R. C. (1989). *Parenting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families and primary families.* Adelphi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58.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15–27.

59. Sullivan, O., Billari, F. C., & Altintas, E. (2014). Fathers' changing contributions to child care and domestic work in very low-fertility countries: The effect of edu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5*(8), 1048–1065.

저 자 소 개



조 찬 희 (Chanhi Cho)

현재 리스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여신을 취급하는 롯데캐피탈(주)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성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1인 창조기업(Self-employed Creative Company), ICT 중소기업(ICT SMEs), 중소기업 R&D(SMEs R&D), 교육 컨설팅(Educational Consulting),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리더십(Leadership), 조직몰입(Organizational Culture), 조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nalysis) 등이다.



김 교 현 (Kyoheon Kim)

현재 주식회사 삼마에서 정부 R&D 지원 대표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며, TIPA, KEIT, IITP 평가기관의 R&D 평가위원 및 전담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운대학교 정보통신 대학원 전파공학과 석사 취득 후 현재 한성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ICT 중소기업기술의 기술가치평가, 정부 R&D 정책, 정부 R&D 지원 사업,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창업멘토 관련 기술기반 컨설팅 등이 있다.



이 형 용 (Hyoung-Yong Lee)

현재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KAIST 경영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KT, (주)SK, 전국신용연합재단, LG U+, 산업자원부등 산업체와 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PACIS, HICSS, AMCIS 등의 confer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Behavioral Intention on IT/Startup, Virtual community, Trust, Financial Fraud Detection, Accounting Auditing 등이 있다.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Parental Level and Family Relationship on Elementary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Anxiety

Chanhi Cho^{*}, Kyoheon Kim^{**}, Hyoung-Yong Le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and of working couples have been improving the quality of parenting and the economic situation of par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which consists of child rearing support and family health in conversation and play, has been improving as well.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arental level and the family relationship on the spending in private education in households with elementary student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ation of parental efficacy and parenting anxiety, through which family relationship and parental level affect elementary private education. Data of 1,075 parents with children aged 6 to 11 from 2018 Children's Comprehensive Survey are used in statistical analysis via PLS structural equation. This study shows that family relationship and parental level had have a positive effect on parental efficacy, and family relationship, parental level and parental efficacy had have a negative impact on parenting anxiety. It is also confirmed that parental level has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education, and that parental efficacy has a negative impact on private education. Family relationship and parental level affects parenting anxiety and private educa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parental efficacy. This study finds that improving parents' economic and educational level in the overheated private education atmosphere increases private education, but improving parental efficacy from good family relationship lowers parenting anxiety and private educa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balancing children's education and family happiness from a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

Key Words: Family Support, Family Health, Family Relationship, Parental Educational Level, Parental Economic Level, Parental Level, Parental Efficacy, Parenting Anxiety, Private Education, Knowledge Management

*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ansung University, School of Management